

이재상

박사

형법

진도별모강

- 안정적인 합격을 위해 확실한 합격선을 넘어서 반드시 변호사시험에서 합격하는 것을 목표로
- 출제가능성 높은 판례를 반영한 문제구성 : 최신판례, 변시·법전협 기출판례, 법원행시·사법시험 기출판례 - 상세한 누적적 기출표시를 통해 출제가능성 높은 쟁점 확인
- 확인학습을 위한 최소한의 중요기출문제(변시, 사시, 법원행시) 추가 제공
- 실제로 Case문제에 어떻게 적용하는가를 설명함으로써, 합격할 수 있는 답안작성방법 지도
- 답안작성법은 물론 채점의 포인트까지 동시에 점검하여 안정적인 합격점 획득
- 실제 답안 현출시에 사용할 간결한 표현, 판례문구의 정리 및 형사소송법을 고려한 답안지 분량 조절연습

일 정

2018. 9. 12(수) ~ 9. 19(수), 총 7 회, 월~토 강의

시험 오전 8시 ~ 9시 30분

강평 오전 9시 45분 ~ 12시 30분 (사례형 해설→휴식→선택형 해설)

교 재

• 진도별 모의시험 문제 + 해설자료 (제공)

※ 주의점 : 사례형 문제는 형식적으로 100점을 기준으로 출제하지만, 본 시험의 배점과 같이 60점이라고 생각하고 형사소송법 문제를 염두에 두면서 답안지 분량과 시간을 잘 조정하여 답안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도 답안지 4쪽을 다 채워서는 안 됩니다.

※ **개인별 대면참석반** - 2일차부터 진행 (개인별 참석시간은 2일차에 공지에정)

L A W S C H O O L

강 의 진 행**제7회 변호사시험 출제경향의 분석 및 향후 전망****1. 선택형 문제**

- 선택형 문제는 ① 형법 영역에서 18문제(45%), 형사소송법 영역에서 12문제(30%), 그리고 형법과 형사소송법 통합형 10문제(25%)가 각각 출제되었는데, 이 비율은 제1~6회 변호사시험 내 내 거의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② 그리고 형법 영역에서는 총론 10문제, 각론 7문제, 총 각론을 결합한 유형 1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③ 특별형법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그리고 통신비밀보호법에서 판례지문이 각각 1개씩 출제되었습니다. ④ 그리고 순수 이론문제는 총 11개 지문이 출제되어 지난 6회 변시 이론지문의 비중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⑤ 문제유형별로는 형법실무이론인 형의 집행유예의 실효와 취소에 관한 문제가 출제되었는데, 주어진 시간 내에 풀기가 매우 어려웠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⑥ 순수한 객관식 사례형 문제는 지난 6회에서는 2문제가 출제되었는데, 이번 제7회 변시에서는 1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사례형 문제를 풀면서 추출해야 하는 쟁점들이 그대로 지문화 되는 방식이어서 사례형 문제를 잘 푸는 수험생들은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난이도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형법과 형사소송법 통합형 문제에서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와 관련한 쟁점이 출제되었는데, 이와 동일한 쟁범이 사례형 문제에서도 출제된 것은 매우 이채로운 출제방식이라고 생각됩니다.
- 변시를 6회 동안 거치면서 이제는 형법 전 영역에서 순수이론과 판례, 그리고 실무적인 내용이 골고루 출제되는 경향이 자리를 잡은 것 같다고 판단되고, 문제 난이도는 전반적으로 여타 국가시험과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높게 상승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앞으로도 계속 유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나머지 문제들은 모두 이론과 판례를 혼합하여 물어보거나 아니면 판례로만 구성된 문제입니다. 각론 6문제는 대부분 판례로만 구성되었으며, 법조문을 물어보는 문항도 눈에 들어옵니다.
- 그리고 2017년 법전협 모의시험과 연계된 판례지문들이 많이 출제되었으며, 그 외에도 법원행정고시 등에서 출제된 판례지문들도 많이 출제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상 역시 지난 몇 년 동안 변함없이 계속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이제 변시를 대비해서는 위의 시험에서 출제된 문제들을 반드시 점검하는 것은 형법 고득점으로 가는 필수적인 과정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 최신 판례는 총 4개가 출제되었는데, 이는 예년과 비슷한 정도입니다.
- 형법, 형소법 통합형 문제는 모두 사례형으로 출제되었는데, 예년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설문과 각 지문이 길고 양이 상당한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통합형 문제는 사실 미니사례를 여러 개 푸는 것과 마찬가지로이기 때문에 시간적 압박과 심적 부담이 있었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그리고 예년과 마찬가지로 상당히 높은 정도의 난이도가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 지난 1~4회 시험들에 비하여 5회부터 시작하여 6~7회 시험에 이르기까지 문제 난이도가 급상승하였고, 문제구성이 복합적이면서도 정교해지는 추세에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것이 앞으로의 변호사시험의 경향으로 굳어 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형법이론과 판례를 다면적으로 보는 학습계획이 필요해 보입니다.

2. 사례형 문제

- 사례형 문제는 지난 6회 변시와 동일하게 제1문 100점(형법 60점, 형소법 40점), 제2문 100점(형법 60점, 형소법 40점) 총 200점 분량으로 2문제 모두 형법과 형사소송법의 통합형으로 출제되었습니다. 제4~5회 변호사시험에 비하여 형법 배점이 제2문에서 10점이 늘어나면서 6~7회 시험에서는 형법사례의 중요도가 한층 높아졌습니다.
- 제1문에서
 - ①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와 관련하여 정범의 죄책과 이를 이용한 간접정범의 죄책이 출제되었습니다. 지난 5회 시험 때도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착오가 출제되었으나, 간접정범과 관련된 쟁점을 물어 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와 관련된 쟁점은 형법에서 가장 어려운 쟁점으로 공히 인정받아 왔다는 점에서 이번 제7회 시험에서는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에 빠진 자를 이용한 자의 죄책에 대한 기술을 요구한 것으로 인하여 시험의 난이도가 한층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 ② 또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취거한 다음 이를 사용하여 현금을 인출하고 이를 제자리에 갖다놓은 행위의 죄책을 묻고 있는바, 아마 형법 사례형 문제와 관련한 각종의 국가시험에서 가장 빈번하게 출제되는 쟁점으로 사료됩니다. 워낙 자주 출제되는 만큼 이에 대하여 수험생들도 잘 준비하였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누가 답안을 더 정치하게 작성하는지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
 - ③ 국립대학교 병원 소속 의사로부터 허위내용의 진단서를 발급받은 것이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의 성립과 관련된 것인지 아니면 허위진단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의 성립과 관련된 쟁점인지를 다루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국립대학교 병원 소속 의사라면 일단 공무원으로 추정될 것이므로 그가 발급해 준 허위내용의 진단서는 판례에 따라서 일단 허위공문서가 될 것이고, 여기에 허위사실의 기재의 고의가 없는 의사를 행위자가 이용한 것이나, 과연 신분범인 아닌 자가 진정신분범인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될 수 있는지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

제2문에서는

- ④ 업무상 배임죄의 기수의 인정 여부와 관련하여 최신판례인 2017년 전원합의체 판결의 내용이 출제되었습니다. 이런 유형의 출제는 법원행사에서 자주 보는 형태인데, 변이나 법행의 출제형식의 호환성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 ⑤ 아울러 비신분자가 부진정신분범에 가담한 경우인 ‘공범과 신분’과 관련된 쟁점이 제3회와 제6회에 이어 이번에 또 출제되었습니다.
- ⑥ 그리고 신체의 일부분만이 주거에 들어갔을 경우 주거침입죄의 기수가 인정되는지와 위력에 의한 공무집행방해행위를 위력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와 초등학교들의 수업을 방해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가와 관련된 쟁점이 출제되었습니다.
- ⑦ 그리고 많은 수험생들이 이미 예상했던 바이지만, 중간생략형 명의신탁의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는가 하는 쟁점이 무고죄의 성부와 연결되어서 출제되었는데, 아주 치밀한 문제구성이라고 할 것입니다.

- 이번 사례형 문제의 주요 특징은 ① 무엇보다도 그 어느 해보다도 문제의 완성도가 높았으며, 각 쟁점들의 중요도나 그 난이도에 있어서도 최상급의 것들이 엄선됨으로써 형법 전반에 대한 기초가 확고하지 아니하면 쉽게 다가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② 그리고 제1문에서는 주로 형법총론의 쟁점이, 제2문에서는 형법각론의 쟁점이 출제되었습니다. 형법 전반에 걸친 내용을 아주 세련되게 잘 다루었고 ③ 특히 기출 된 쟁점이나 법전험 모의시험의 중요쟁점들이 또다시 출제되었습니다. ④ 돌이켜보면 지난 제1-4회 시험에서는 각론 위주로 출제되었으나, 제5-6회 시험부터는 쉽지 않은 내용의 총론의 쟁점들이 전면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출제경향은 이번 제7회 시험에서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④ 그리고 별다른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형법 쟁점들을 서로 아주 치밀하게 연결시켜 완전히 다른 쟁점으로 재탄생하게 하는 고도의 출제기법들이 선보였는데 이런 유형의 문제들은 상당한 난이도의 출제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⑤ 무엇보다도 이번 제7회 시험은 문제의 완성도와 난이도에 있어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평가되는 만큼 수험생들이 아주 고민스럽게 다가갈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본 강의의 특징**1. 본 강의가 지향하는 목표**

- 본 강의는 고득점 합격을 직접적으로 목표로 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난하게 득점을 하면서도 확실하게 합격선을 넘어서 반드시 변호사시험에서 합격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① 단 7회 시험의 분량으로 형법 선택형에서 100점을 득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80점 정도만 득점해도 선택형 문제에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입니다. 80점은 객관식 문제 평균이 120개나 되는 것입니다. 이 정도 성적이면 합격점으로 충분합니다.
- ② 사례형 문제에서는 본 시험에서 출제될 수 있는 쟁점뿐만 아니라 사례형 문제를 푸는 방법을 습득합니다. 사례형 문제 형법 과목에서 각 문제를 기준으로 70점 정도의 득점을 목표로 합니다. 본 시험을 통과하는 데는 무난한 점수가 될 것입니다.

2. 선택형 문제 출제 및 구성

- ① 선택형 문제는 20문이 매일 출제됩니다.
- ② 모든 선택형 문제는 출제 가능성이 높은 기출판례와 최신판례 등 중요판례를 중심으로 구성됩니다. 모든 선택형 문제는 다음과 같은 점을 중점적으로 고려하여 출제됩니다.
 - * 최근 3년간 최신판례 중에서도 출제가능 한 중요쟁점판례를 반영한 문제구성
 - * 변호사시험 및 법전협 모의시험의 선택형, 사례형 기출판례를 모두 집약한 문제구성
 - * 최근 5년간 법원 행정고시 선택형, 사례형 기출판례를 모두 망라한 문제구성
 - * 지난 10년간 사법시험 선택형, 사례형 기출판례를 모두 망라한 문제구성
 - * 2018년 9월까지 공보에 게재된 최신 중요판례로 지문구성
- ③ 선택형 이론문제를 위한 최적화된 형법이론을 모두 점검할 것입니다.
 선택형 문제는 순수한 이론문제로도 출제됩니다. 그러므로 단 하나의 이론문제라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변이나 법원행시, 사시의 이론문제 출제경향을 철저히 분석하여 출제가능성에 최적화된 이론문제를 구성하겠습니다.

④ 모든 기출지문에 대한 해설 뒤에는 변시, 법원행시, 법전협 모의시험, 사시 등의 기출표시를 하여 출제지문의 신뢰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기출표시는 누적된 만큼 그대로 표시됩니다. 누적된 기출표시가 많아질수록 그만큼 다시 출제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⑤ 매일 변시나 2018년도 법전협 모의고사 제1, 2회에서 출제된 선택형 문제를 해설과 함께 문제 뒷부분에 수록하겠습니다.

회차 별로 5~8개 정도의 문제 분량이 될 것입니다. 기출문제를 직접 풀어 보게 되면 실전문제에 대한 적응력이 한층 높아질 것입니다.

⑥ 2018년 법원 행정고시 객관식 문제에서는 2018년 최신 판례가 아주 많이 출제된 바 있습니다. 이 문제들도 함께 수록하도록 하겠습니다.

3. 사례형 문제(100점 기준) 출제 및 구성

① 형법총각론의 중요쟁점들을 완벽하게 정리하여 출제함으로써 형법이론체계를 머리 속에 확실하게 세우고, 이를 실제로 Case문제에 어떻게 적용하는가를 연습함으로써, 합격할 수 있는 답안작성을 가능케 하여 변시 사례형 문제를 대비한 형법공부의 틀을 구축하겠습니다.

② 출제의 포인트뿐만 아니라 채점의 포인트까지 점검하여 반드시 합격하는 답안의 작성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똑같은 답안이라도 고득점을 하는 답안과 그렇지 못한 답안이 있습니다. 보통 형법 사례형 문제의 결론은 알겠는데 답안작성이 막막하다고 하소연하는 수험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형식의 목차구성을 할 것이며, 해당 논점을 서술할 때 반드시 포함해야 할 내용은 무엇인가?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강의하겠습니다.

③ 최근 계속하여 바뀌고 있는 새로운 출제경향에 완벽하게 대비함으로써 출제유형의 변화에 잘 적응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시험문제에 대한 모범답안과 그것이 압축된 실전답안을 별도로 작성하여 풍부한 내용고찰과 아울러 실제 답안지에 기입할 적정량의 답안내용의 기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④ 실제 답안 현출시에 사용할 간결한 표현, 판례문구를 정리하고 무엇보다도 형사소송법과의 관계를 고려한 답안의 분량조절 등도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4. 통합형 문제 출제 및 구성

① 무려 10문제나 출제되는 형법, 형사소송법 통합 선택형 문제는 고득점을 좌우하는 절대 간과할 수 없는 출제영역입니다.

그런데 통합형 문제는 그 본질이 객관식 사례인 만큼 단순히 선택형 문제지문에 대한 OX를 맞히는 것이 아니라 사례 전체의 맥락에서 해당 지문이 올바르게 기술되었는가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가가 관건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형법 위주로 된 객관식 사례라 할지라도 이를 충분히 연습하여야 통합형 문제에 대한 해결능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② 선택형 20문 중 매일 2~3 문제는 객관식 사례로 출제하여 통합형 문제에 대한 적응도를 높이는 아주 효율적인 강의를 되도록 만들 것입니다.

5. 법전협 모의시험 사례형 문제의 학습

① 선택형 문제와 동일하게 사례형 문제에서도 법전협 모의고사는 사례형 문제 고득점의 지름길입니다.

② 참고로 2015년 제1회 법전협 모의고사에서는 “형법 제310조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에 관한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또한 2015년 제3회 법전협 모의고사에서는 “신뢰의 원칙이 인정되는 교통사고와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위반(도주차량)죄의 성부”가 출제되었습니다.

③ 물론 이 쟁점들은 변시 5회 시험에서 사실관계만 바뀌어 출제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방식의 출제는 제6회, 제7회 변시에서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의진행방법

1. 강의는 문제에 대한 강평 및 해설강의로 진행됩니다.

• 이해하기 어려운 이론적 쟁점과 학설의 대립을 간단명료하게 아주 쉽게 정리하고, 개별적인 총각 쟁점들의 유기적 연결을 통하여 형법이론체계를 확실하게 정립하는 형법강의를 할 것입니다.

2. 형법체계론의 확실한 정립을 목표로 선택형 문제의 중요지문 위주로 해설하면서 그 의미내용을 익히고, 문제풀이방식을 완벽하게 체득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3. 사례형 문제와 관련하여는 형법총각론의 중요쟁점들이 실제로 Case문제에 어떤 형식으로 출제되는가를 연습하고, 이를 효율적인 답안작성으로 이어지도록 하여 고득점의 길로 안내할 것입니다.

이재상 박사 강의계획서

형법 진도별 모강

강의진도표

회 차	일 정	선택형 시험범위
1	9/12(수)	죄형법정주의, 부작위범,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구성요건적 고의와 사실의 착오, 과실범, 결과적 가중범
2	13(목)	위법성론, 책임론
3	14(금)	실행의 착수와 장애미수, 중지미수, 불능미수, 예비음모, 공범이론, 간접정범, 공동정범(1)
4	15(토)	공동정범(2), 교사범, 방조범, 공범과 신분, 죄수론, 형벌론, 생명과 신체에 관한 죄
5	17(월)	자유에 관한 죄, 명예와 신용에 관한 죄, 사생활의 평온에 관한 죄, 절도죄, 강도죄
6	18(화)	사기죄, 공갈죄, 횡령죄, 배임죄, 장물죄, 손괴죄, 권리행사방해죄
7	19(수)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 선택형, 사례형 문제 강의진도는 동일합니다.

※ 사례형 문제의 진도범위는 누적됩니다.